

보도시점 : 2023. 11. 20.(월) 11:00 이후(11. 21.(화) 조간) / 배포 : 2023. 11. 20.(월)

폴란드 오가는 하늘길 10년 만에 넓어진다

- 한-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운수권 총 주5회 증대, 부산發 운수권도 신설
- 영국과 항공회담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화물 상협 체결 의무 폐지

□ '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-폴란드 항공회담* 결과, 여객 운수권**은 한(모든 공항)-폴란드(모든 공항) 간 주7회(+2회)로 늘어나고, 추가로 한(부산)-폴란드(모든 공항)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.

* (한-폴란드) 11.16~11.17, 바르샤바 /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-폴 민간항공청장

** 운수권 :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

○ 또한, 한-영국 항공회담*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,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,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.

* (한-영국) 11.13~11.14, 런던 /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-英 교통부 항공 부수석협상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,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.

□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*이 다수 위치하여 중·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, 최근 방산, 플랜트,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*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(브로츠와프, '16년~), SK넥실리스 동박공장(스탈로바볼라, 건설 중) 등

○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(모든 공항)-폴란드(모든 공항)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(+2회)로 증대하였고,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(부산)-폴란드(모든 공항) 주3회도 신설하였다.

□ 한편,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 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*하였다.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-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.

* (기존) 한-런던(히드로, 개트윅)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없는 단독 화물은 주1회만 가능 하나,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 → (변경) 해당조항 폐지

○ 아울러, 영국의 EU 탈퇴(브렉시트)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*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·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였다.

*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(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 필요)

□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·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, 향후 김해-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	주무관	장휘량 (044-201-4220)
			주무관	강인혜 (044-201-4216)

참고

한-폴란드, 한-영국 간 운수권 등 현황

구분		세부내용		
한 -폴란드	운수권	기존	· 한(모든공항)-폴란드(모든공항) 간 주7회 (여객 주5회 , 화물 주2회)	
		변경	· 한(모든공항*)-폴란드(모든공항) 간 주9회 (여객 주7회 , 화물 주2회) * 인천, 부산, 대구, 청주공항 등 한국 모든 국제공항 포함 · 한(부산)-폴란드(모든공항) 간 주3회 (여객 주3회 , 신설)	
	운항 현황 (‘23.冬)	한측	· 비운항	
		폴측	· LOT폴란드 총 여객 주5회 - 인천-바르샤바 주4회, 인천-브로츠와프 주1회 * 탑승률(‘23.10월) : 94%	
한 -영국	운수권	· 한(모든공항)-런던(히드로.게트윅) 간 주17회 (여객, 화물 합산) * 이외 노선(예: 런던(스텐스테드))은 운수권 제약없이 운항 가능		
		상무 협정	기존	· 상대국 항공사와 협의없는 단독화물은 주1회만 가능하며, 수익공유 협의된 별도 화물도 주2회도 반드시 병행 필요 * 다만, 수익공유 협의된 화물은 운수권 미소진으로 간주
			변경	· 기존 조항 폐지 → 주17회 범위 내 자유롭게 화물운항 가능 * 다만, 자발적 협력계약 기반의 화물운항은 운수권 미소진으로 간주
	운항 현황 (‘23.冬)	한측	· 대한항공 여객 주7회 - 인천-런던(히드로) 주7회 * 탑승률(‘23.10월) : 89% ** 화물은 런던(히드로) 주3회(단독 주1회, 상협 주2회)	
			· 아시아나 여객 주5회 - 인천-런던(히드로) 주5회 * 탑승률(‘23.10월) : 90% ** 화물은 런던(스텐스테드) 주2회	
		영측	· 비운항	